聚瑞圖。皇上御極元年，符瑞疊呈，分歧合穎之谷實於原野，同心並蒂之蓮開于禁池。臣郎世寧拜觀之下，謹匯寫瓶花，以記祥應。雍正元年九月十五日，海西臣郎世寧恭畫。

낭세녕, 취서도(聚瑞圖), 1723.

大學士等奏言, 江南、山東所產麥穀, 皆兩岐雙穗。蜀黍,
一干四穗。內池蓮房同莖分蒂。諸瑞疊呈,
實皆皇上盛德之所感召。請宣付史館。

(清實錄雍正朝實錄, 雍正元年癸卯八月戊申朔)

대학사 등이 아뢰어 말하기를, 강남과 산동에서 생산된 보리와 곡식이 모두 한 줄기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 두 개의 이삭을 맺었고, 촉서(수수)는 한 줄기에 네 개의 이삭을 맺었으며, 내지(內池)의 연꽃은 한 줄기에서 줄기가 갈라져 각각 열매를 맺었습니다. 여러 상서로운 징조가 거듭 나타난 것은 실로 모두 황상(皇上)의 성대한 덕이 감응하여 불러온 바입니다. 이에 사관(史館)에 내려 기록하게 하시기를 청합니다.

山東巡撫黃炳摺奏、秋禾暢茂。雙穗瑞谷處處挺生。採取恭進。奉上諭。此誠天地神祇、並皇考聖靈垂佑之所致也。今歲北四省。俱報豐收。閭閻自得充裕。朕不勝慶幸。亦由民風淳樸，封疆大吏、治理有方，始克睹嘉穀之祥。念茲感應神速。愈當加勤職業，仰答天庥。

(清實錄雍正朝實錄, 雍正元年癸卯秋七月)

산동 순무 황병이 상주하여 아뢰기를, “가을 곡식이 무성하게 자라며 두 이삭이 달린 상서로운 곡식이 곳곳에서 돋아나 이를 채취하여 공손히 바쳤습니다.” 이에 상유를 내리시기를, “이는 참으로 천지의 신들과 선황(皇考)의 성령이 드리운 보우의 결과이다. 금년에는 북방 네 성에서 모두 풍년을 보고하였고, 마을 백성들도 스스로 넉넉함을 누리고 있으니, 짐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. 또한 이는 백성들의 풍속이 순박하고 변경의 대신들이 다스림을 잘한 데에서 비롯되어 비로소 좋은 곡식의 상서를 보게 된 것이다. 이러한 감응이 신속함을 생각하니, 더욱 직무에 힘써 하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.”

八月初二日，山東省進瑞穀數百枝，皆一本雙穗 …
8월 초이일에 산동성에서 상서로운 곡식 수백 포기를 바쳤는데, 모두 한 줄기에서 두 개의 이삭이 달린 것이었다.

又於初六日得觀，內苑太液池中所實蓮房同莖分蒂，駢實雙成 …
또 초육일에 나타나기를, 내원 태액지에서 맺힌 연밥이 한 줄기에서 갈라져 두 개의 열매가 나란히 이루어졌다.

雍正朝起居註冊, 雍正元年八月初十日

慈姑,一根歲生十二子，如慈菇之乳諸子，故以名之。(本草綱目)

낭세녕,
지련쌍서(池蓮雙瑞) 1723.

쌍두(雙頭)

중태(重臺)